한국보육지원학회지 제14권 제1호
Korean J of Childcare & Education
https://doi.org/10.14698/jkcce.2018.14.01.249 2018, Vol. 14, No. 1, pp. 249-268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reschoolers' Temperament on Peer Play Behaviors: Focusing on Mediation of Mothers' Social Interaction Parenting Behaviors

황혜신[1] 서주현[2]

Hae Shin, Hwang[1] Joo Hyun Suh[2]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eschooler's temperament on peer play activity, focusing on the mediation of mothers'social interaction parenting behaviors

Methods: 1695 mothers of preschooler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children's temperament and peer play behaviors, and mothers'parenting behaviors. Data were analyzed by regression analyses by SPSS 18.0.

Results: First, preschoolers' sociability exerted positive effects on good peer play behaviors(play interaction) and negative effects on the bad peer play behaviors (disruption, disconnection) and both were partially mediated by mothers'social interaction parenting behaviors. Second, preschoolers' emotionality exerted negative effects on good peer play behaviors and positive effects on the bad peer play behaviors and both were partially mediated by mothers'social interaction parenting behaviors. Preschoolers' activity exerted positive effects on good peer play behaviors and negative effects on the bad peer play behaviors and both were partially mediated by mothers'social interaction parenting behaviors.

Conclusion/Implications: These findings provide preliminary evidence that mothers' social interaction parenting behavior partially mediate the effects of preschoolers'temperament on peer play behaviors. Implications for the use of intervention targeting specific temperament have been discussed.

key words preschoolers'temperament, parenting behavior, peer play behaviors

* 본 연구는 2016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음.

[1] 제1저자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수

[2] 교신저자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e-mail : jhsuh@smu.ac.kr)

Ⅰ. 서 론

영유아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영유아가 본격적으로 대인에 대해 인식하고 그와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게 되며, 이로부터 중요한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적 관계는 유아기에 형성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유아기 초기의 또래놀이행동은 이후 사회성 발달에 토대가 되기 때문에(Hartup,

2005)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자라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유아기 초기의 또래놀이행동은 기존의 가족구성원을 넘어 타인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과정이며, 유아를 이해하고 양보하며 잘 맞춰줄 수 있는 가까운 성인과의 상호작용과 비교했을 때, 유아 본인과 마찬가지로 아직 사회적 상호작용이 미숙한 또래와의 놀이행동을 하는 것은 유아기 초기에 경험하고 발달시켜 나가야하는 중요한 과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와의 놀이행동을 통해 유아는 자아에 대한 개념과 자존감을 형성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식과 관련한 기본 기술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의 또래놀이행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은 유아의 사회성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개입이 될 수 있다.

현대사회의 영유아들이 예전보다 더 이른 나이부터 집단생활 및 또래 간 놀이행동을 경험하지만 이는 발달단계상 수동적인 놀이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 Parten(1932)의 사회적 놀이 발달 이론에 따르면, 영유아들이 자유롭게 놀이하는 장면을 관찰하여 사회적 놀이 발달의 수준을 나누어 볼 때, 혼자놀이로 진행되던 놀이의 형태는 또래와 함께 하는 놀이인 병행놀이를 거쳐 연합놀이, 협동놀이로 발달해 나가는데, 이 중 또래와 함께하는 사회적 놀이의 기본적인 수준은 병행놀이로(Rubin, 1977) 이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적 놀이가 발달하며, Parten(1932)이 제시한 놀이 발달 단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2.5세에서 3.7세 사이에 나타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또래간의 상호작용이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3세 전후의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또래놀이행동의 초기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유아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는 주로 유아의 성별(김상림, 박창현, 2015; 성미영, 2017), 출생순위(박성연, 도현심, 1993), 수줍음(김윤희, 신나리, 2016) 및 정서적 규제능력(성미영, 2016; Eisenberg et al., 1996), 기질적 특성(김미은, 최선녀, 2016; 신은경, 정아현, 김소아, 2014)이 주요 요인으로 검증되어왔다. 이 중 수줍음이나 정서적 규제능력은 기질의 구성요인인 정서성과 관련이 깊은 요인으로서 성별 및 출생순위를 제외하고는 기질적 특성이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개인적 요인으로 검증되었다. 기질은 개인의 선천적인 속성으로서, 개인에게 주어지는 환경의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반응 양식을 나타내는 개념이다(Buss & Plomin, 1984). 개인의 사회적 환경인 대인관계 및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기질적 특성에 따라 개인이 반응하는 양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질적 특성은 또래상호작용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왔다(Belsky & Pluess, 2009) 국내외 선행연구를 통해서도 기질적 특성은 유아의 사회성발달(김미은, 최선녀, 2016), 또래상호작용(Sanson, Hemphill, & Smart, 2004), 또래놀이행동(성미영, 2017)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은 유아의 성별, 기질적 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 등 여러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보거나 혹은 일부 기질적 특성만을 분석한 연구로서 각 기질적 특성이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지는 못했다. 본 연구는 발달 및 행동의 차이를 설명하는 주요 특질로서 유아의 기질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질의 구성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질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대한 연구는 학자 및 연구에 따라 매우 다양한데, 가장 포괄적으로 기질의 차원 및 유형을 제시한 연구는 뉴욕종단연구(Thomas & Chess, 1977)이다. 이 연구에서는 활동수준, 규칙성, 접근-회피성, 적응성, 반응역치, 반응강도, 기분, 주의 전환, 집중력, 지속성의 9가지 구성요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질의 구성요인 중 규칙성, 접근-회피성, 적응성, 반응강도, 기분의 5개 차원에 기반하여 기질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기질의 특성을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세 유형에 분류되는 아동은 전체 아동의 65%에 불과하다는 점 등 유형화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이후 기질에 대한 연구는 기질을 유형화하기보다 각 개인의 기질을 구성하는 하위 속성별 특징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서주현, 2009). 대표적인 예로서 Buss 와 Plomin(1984)은 기질을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세 구성요인으로 개념화하였고, Rothbart 와 Derryberry(1981)는 활동수준과 정서적 특질을 포함하는 반응성과 사회적 반응행동을 반영하는 자기조절로 구성된 개념으로 보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Buss 와 Plomin(1984)이 제시한 기질의 세 구성요인인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을 중심으로 각 기질적 특성이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질의 구성요인 중 정서성은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기분을 표현하는 감정적 반응 양상을 나타내며 사회성은 타인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는 정도를 나타낸다. 활동성은 전체적인 활동량과 활동의 강도를 나타낸다.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또래놀이행동과 관계됨이 여러 선행연구(우수경, 2008; 허혜경, 2013; Rothbart, Ellis, & Posner, 2004)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 그러나 각 기질적 특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각 기질적 특성마다 양상이 다르다. 기질적 특성 중 정서성은 부정적인 정서의 표출을 나타내어 이러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고 사회적 기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정, 이예진, 신유림, 2013). 한편 사회성은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이 증가한다(홍현재, 2013). 활동성의 경우는 상반된 연구결과들이 존재하는데, 놀이방해 등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기도 하는 반면 자발적인 또래놀이 참여로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이현정, 2014; 천희영, 1993).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기질적 특성이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질의 특성별, 또래놀이행동에서의 긍정적,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으로 나누어 보다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기질에 대한 대표적 접근법 중 기질로 인한 개인차를 연구하는 개인차연구 분야에서는 기질은 유전에 의해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나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기질의 표현 범위가 달라지고 이러한 환경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개인차를 유발한다고 본다(Buss & Plomin, 1984). 따라서, 기질적 특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기질적 특성의 표현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래놀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환경적 요인으로는 대표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을 들 수 있다. 양육행동은 유아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태도 및 행동을 나타내는 개념으로서(Schaefer, 1959) 여기에는 외현적인 행동의 양상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정서적 강도와 심리적 경향을 포함하여 부모-자녀관계의 상호작용의 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본격적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을 시작하는 유아기 초기의 유아들에게는 기존에 친숙한 가족관계에서 경험하였던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원형이 또래관계에서도 실험적으로 적용되는 단계이므로 부모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경험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선행연구(박정희, 장영애, 2004)에 따르면, 유아가 어머니와 어떠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였는지에 따라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형성 능력도 달라진다. 또한,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양육행동을 할수록 자녀의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이 증가하고 어머니가 긍정적 정서를 덜 표현하는 양육행동을 보일수록 자녀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이 증가한다(이지희, 김혜연, 2012). 부모의 애정적, 자율적 양육행동은 자녀를 창의적이고 사교적이며 자신과 타인에 대해 적대감이 없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바람직한 양육행동(김신정, 김영희, 2007)으로 평가된다. 또한 선행연구(장은정, 2001)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애정적이고 자율적일수록 유아의 놀이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온정성과 반응성, 즉 애정을 기반으로 하는 자녀와의 사회적 상호작용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양육행동(Bornstein et al., 1996)에 초점을 맞추어 자녀의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장영은, 2014)도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행동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이라는 여러 선행연구결과 및 개념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반된 연구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유아의 개별적인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전체 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양육행동이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는 유아의 개인적 요인에 따른 변이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유아의 개인적 변인인 기질적 특성은 유아를 대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Schaefer, 1959)이고 양육행동이 유아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 친사회적 행동발달과 관련된 선행연구(Stanhope, Bell, & Parker-Cohen, 1987)를 보면 낮은 권력의 양육행동은 두려움이 많은 유아들의 친사회적 행동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기질적 특성의 유아들에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고찰하기보다 유아가 타고 태어나는 기질적 특성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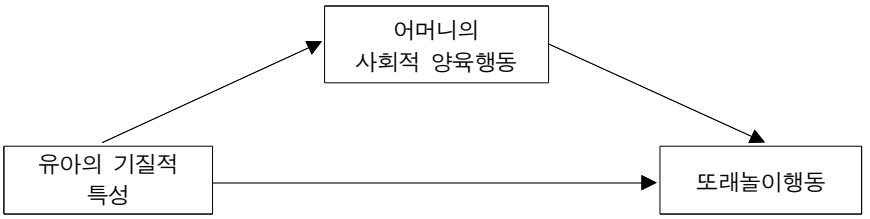
종합하면, 본 연구는 또래놀이행동의 초기발달을 보이는 유아기 초기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여 유아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이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매개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구체적인 양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초기 또래놀이행동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여 영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유아의 기질적 특성(부정적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의 일반적 경향 및 변수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유아의 사회성이 긍정적,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3.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긍정적,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매개하는가?

연구문제 4. 유아의 활동성이 긍정적,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매개하는가?



〔그림 1〕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 역할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또래 간 놀이행동이 증가하는 만 3세 전후의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보기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유아기 초기에 해당하는 2014년도에 수집된 한국아동패널 4차 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패널 데이터 응답자 1754명 중 본 연구의 변인과 관련한 문항에 응답하지 않은 대상 59명을 제외하여 연구대상은 유아와 어머니 1695명이었다. 유아의 월령은 35개월에서 43개월로, 평균 38.7개월이었다. 어머니의 평균 연령은 33.8세였다.

2. 연구도구

1) 유아의 기질적 특성

유아의 기질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uss와 Plomin(1984)의 EAS(Emotionality, Activity and Sociability)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응답하도록 구성되어있다. 하위요인은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정서성은‘우리 아이는 쉽게 기분이 나빠진다.’등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나타내는 정도를 나타낸다. 정서성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부

정적 정서성으로 명명한다. 활동성은 ‘우리아이는 항상 끊임없이 움직인다.’등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유아가 움직이기를 좋아하고 많이 활동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사회성은 ‘우리 아이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한다.’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타인과 잘 어울리며 수줍어하지 않는 정도를 나타낸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영역의 정도가 높음을 나타낸다. 각 하위영역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정서성은 .67, 활동성은 .72, 사회성은 .78로 나타났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측정을 위해 Bornstein et al.(1996)이 개발한 부모양육방식 척도(The Parental Style Questionnaire: PSQ)를 사용하였다. 원척도는 사회적 양육행동(9문항), 가르치는 양육행동(5문항), 한계설정 양육행동(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패널 4차 년도에 사용된 사회적 양육행동 6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양육행동은 ‘아이와 이야기해주고 놀아준다.’ 등의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실제로 행하는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어머니의 온정성과 반응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이고 적절히 반응하며 애정과 관심을 보이는 부모자녀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적인 교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87이었다.

3)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양상을 측정하기 위하여 Fantuzzo et al.(1995)의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enn Interactive Play Scale: PIPPS)를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검토, 수정하여 국내적용에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놀이 상호작용, 놀이 방해, 놀이 단절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놀이행동을 긍정적인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친사회적인 특성과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을 측정한 놀이 상호작용을 ‘긍정정 또래놀이행동’으로,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정서 표현 등을 나타내는 놀이 방해와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무시 또는 거부당하는 특징인 놀이단절을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으로 명명하여 분석의 단위로 사용하였다.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은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한다.’ 등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은 놀이방해를 측정하는‘차례를 지키지 않는다.’ 등 13문항과 놀이단절을 측정하는‘목적 없이 돌아다닌다.’, 등 총 9문항으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척도는 어머니가 지난 2개월 동안의 자녀 행동에 대하여 평정하도록 되어있으며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각 영역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또래놀이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값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은 .80,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은 .83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과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절차에 따라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통계적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기질적 특성,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의 경향 및 상관관계

본 연구의 유아의 기질적 특성,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의 일반적 경향은 <표 1>과 같다. 유아의 기질적 특성 중 사회성(3.45점)과 활동성(3.82점)은 중간 값(3점) 이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이고, 부정적 정서성(2.87점)은 중간 값 이하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3.80점) 역시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유아의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은(3.45점) 다소 높은 수준이었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2.11점)은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표 1〉 변수의 일반적 경향 (N = 1695)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유아의 기질적 특성				
사회성	1.80	4.90	3.45	.44
부정적 정서성	1.00	5.00	2.87	.61
활동성	1.80	5.00	3.82	.60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1.89	5.00	3.80	.49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1.33	5.00	3.45	.49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1.04	3.86	2.11	.36

유아의 기질적 특성(사회성, 부정적 정서성, 활동성),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유아의 또래놀이행동(긍정적, 부정적)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기질의 세 특성 중 사회성과 활동성은 부정적 정서성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사회성이나 활동성이 높은 유아는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출하지 않는 경향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다른 변인과의 상관관계에도 일관되게 나타나서, 사회성과 활동성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및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는 정적인 상관을, 부정적 또래놀이행동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과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정리하면, 사회성 및 활동성과는 반대로 유아의 부정적인 정서 표출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및 긍정적 또래놀이행동과는 부적인 관계, 부정적 또래놀이행동과는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 유아의 기질적 특성,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간의 상관관계 (*N* = 1695)

	1	2	3	4	5	6
유아의 기질적 특성						
사회성	1.00					
부정적 정서성	-.10***	1.00				
활동성	.49***	-.04***	1.00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19***	-.25***	.15***	1.00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42***	-.14***	.25***	.34***	1.00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24***	.35***	-.17***	-.30***	-.35***	1.00

***p < .001.

2. 유아의 사회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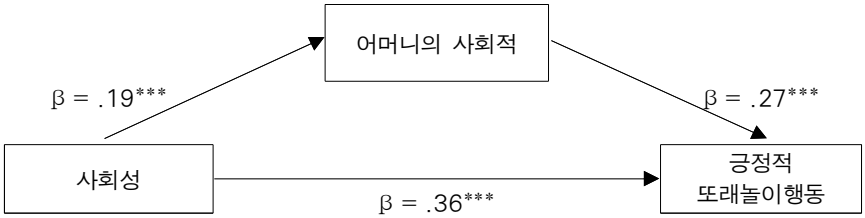
1) 유아의 사회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의 사회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아의 사회성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F = 65.35, p < .001), 또래놀이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52.85, p < .001). 또한 유아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또래놀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67.94, p < .001). 이때 유아의 사회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여(β = .42, p < .001; β = .36, p < .001),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6.97, p < .001). 이는 유아의 사회성이 또래놀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통해 또래놀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3〉 유아의 사회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N* = 1695)

단계	변인	*B*	β	*t*	R^2	*F*
1단계 (독립 → 매개)	사회성 → 사회적 양육행동	.22	.19	8.08***	.04	65.35***
2단계 (독립 → 종속)	사회성 →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46	.42	18.78***	.17	352.85***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사회성 →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41	.36	16.86***	.24	267.94***
	사회적 양육행동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26	.27	12.31***		

***p < .001.



〔그림 2〕 유아의 사회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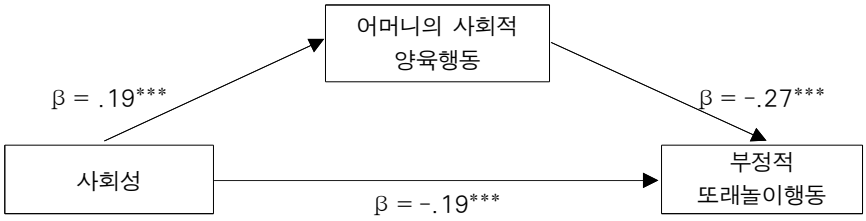
2) 유아의 사회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의 사회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아의 사회성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F = 65.35, p < .001),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03.85, p < .001). 또한 유아의 사회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22.13, p < .001). 이때 유아의 사회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여(β = -.24, p < .001; β = -.19, p < .001), 사회적 양육행동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5.91, p <

〈표 4〉 유아의 사회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양육행동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N = 1695)

단계	변인	B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사회성→사회적 양육행동	.22	.19	8.08***	.04	65.35***
2단계 (독립→종속)	사회성→부정적 또래놀이행동	-.20	-.24	-10.19***	.06	103.85***
3단계 (독립, 매개→종속)	사회성→부정적 또래놀이행동	-.16	-.19	-8.16***	.13	122.13***
	사회적 양육행동→부정적 또래놀이행동	-.20	-.27	-11.50***		

***p < .001.



〔그림 3〕 유아의 사회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001). 즉 유아의 사회성은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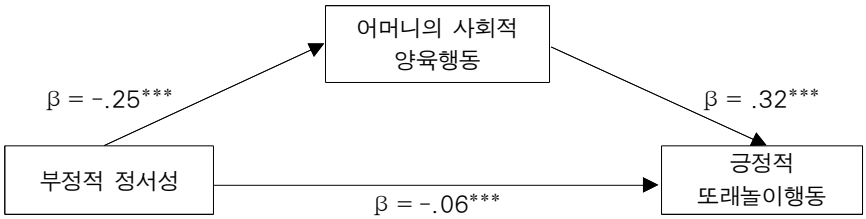
1)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F = 115.97, p < .001),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도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34.00, p < .001). 또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사회적양육행동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11.22, p < .001). 이때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여(β = -.14, p < .001; β = -.06, p < .001),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8.48, p < .001).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직접

〈표 5〉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 (*N* = 1695)

단계	변인	*B*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부정적 정서성 → 사회적 양육행동	-.20	-.25	-10.77***	.06	115.97***
2단계 (독립→종속)	부정적 정서성 →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11	-.14	-5.83***	.02	34.00***
3단계 (독립, 매개→종속)	부정적 정서성 →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05	-.06	-2.50***	.12	111.22***
	사회적 양육행동 →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32	.32	13.59***		

***p < .001.



〔그림 4〕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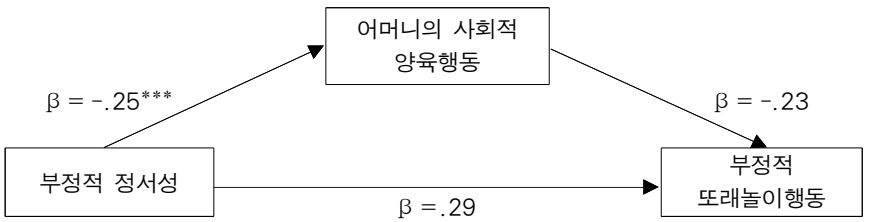
2)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며($F = 115.97$, $p < .001$),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는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237.79$, $p < .001$). 또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75.86$, $p < .001$). 이때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여($\beta = .35$, $p < .001$; $\beta = .29$, $p < .001$), 정서적단절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6.48$, $p < .001$). 즉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6〉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N = 1695$)

단계	변인	B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부정적 정서성 → 사회적 양육행동	-.20	-.25	-10.77***	.06	115.97***
2단계 (독립→종속)	부정적 정서성 →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21	.35	15.42***	.12	237.79***
3단계 (독립, 매개→종속)	부정적 정서성 →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17	.29	12.82***	.17	175.86***
	사회적 양육행동 →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17	-.23	-10.00***		

***$p < .001$.



〔그림 5〕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4. 유아의 활동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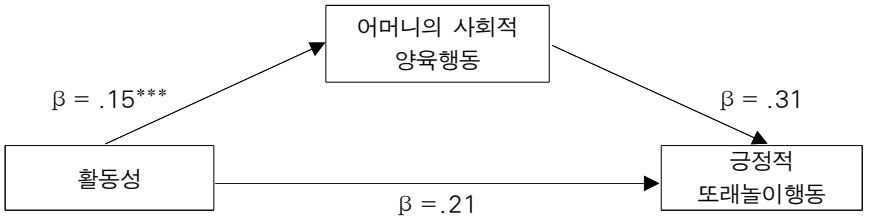
1) 유아의 활동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의 활동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아의 활동성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F = 37.50, p < .001),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14.93, p < .001). 또한 유아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동시에 투입

〈표 7〉 유아의 활동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N = 1695)

단계	변인	B	β	t	R^2	F
1단계 (독립→매개)	활동성 → 사회적 양육행동	.12	.15	6.12***	.02	37.50***
2단계 (독립→종속)	활동성 →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21	.25	10.72***	.06	114.93***
3단계 (독립, 매개→종속)	활동성 →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17	.21	9.17***	.16	155.09***
	사회적 양육행동 → 긍정적 또래놀이행동	.30	.31	13.52***		

***p < .001.



〔그림 6〕 유아의 활동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하였을 때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55.09, p < .001. 이때 유아의 활동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여(β = .25, p < .001; β = .21, p < .001),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6.75, p < .001). 즉 유아의 활동성은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통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2) 유아의 활동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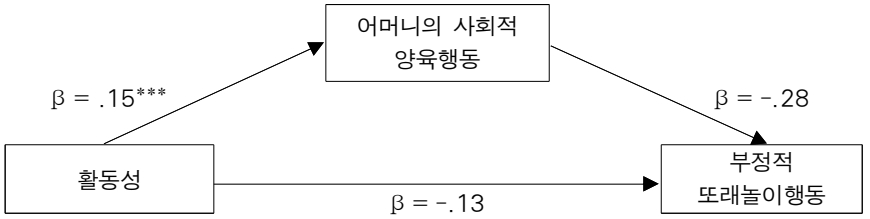
유아의 활동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

개효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유아의 활동성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며(F = 37.50, p < .001),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는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50.63, p < .001). 또한 유아의 활동성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102.34, p < .001). 이때 유아의 활동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여(β = -.17, p < .001; β = -.13, p < .001),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매개효과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본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Z = -10.23, p < .001). 즉 유아의 활동성은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 유아의 활동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N = 1695)

단계	변인	B	β	t	R^2	F
1단계 (독립 → 매개)	활동성 → 사회적 양육행동	.12	.15	6.12***	.02	37.50***
2단계 (독립 → 종속)	활동성 →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10	-.17	-7.12***	.03	50.63***
3단계 (독립, 매개 → 종속)	활동성 →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08	-.13	-5.54***	.11	102.34***
	사회적 양육행동 →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21	-.28	-12.23***		

***p < .001.



〔그림 7〕 유아의 활동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Ⅵ.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놀이행동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만 3세 전후의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유아의 기질적 특성인 사회성, 부정적 정서성, 활동성이 유아의 긍정적,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은 증가하고 부정적 또래놀이

행동은 감소하는데, 이 때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이 관계를 매개하여 유아의 사회성은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유아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은 여러 선행연구(이미란, 2015; 이지희, 김혜연, 2012)에서 유아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또래상호작용이 높아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또한, 유아의 사회성이 놀이방해, 놀이단절 등 부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김상림, 박창현, 2015; 이미란, 2015)에서 사회성이 높을수록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이 감소한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부연구(이미란, 2015; Berdan, Keane, & Calkins, 2008)에서는 유아의 사회성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 중 또래방해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놀이단절은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는 영향은 선행연구(권연희, 2003: 김난실, 이기숙, 2008; 임현주, 2014)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정도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여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의 집단 간 차이를 검증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높은 집단의 유아들이 낮은 수준의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보인다고 한 선행연구(임현주, 2014)의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그러나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없다. 다만, 유아의 발달수준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결과(이선남, 이경옥, 2015)가 유아의 개인변인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매개한다는 면에서 맥을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검증된 매개효과는 유아의 사회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도 증가하며 이는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즉, 유아의 사회성은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엄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통해서도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므로 유아의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유아가 타고 태어나는 개인적 특질인 사회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상대적으로 개선의 여지가 더 큰 부모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의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부모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알리고 이와 관련한 주제의 부모교육을 개발, 실행하는 등의 개입이 유효할 것을 의미한다.

둘째,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또래놀이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관계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통해 매개된다. 구체적으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은 감소하고 부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은 증가하며,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도 감소하여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정적인 효과를 감소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가 부정적인 정서를 많이 표출할수록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은 감소한다는 것으로 선행연구(이지희, 김혜연, 2012; 조운주, 김은영, 2014; 황윤세, 2007; Berdan et al., 2008)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부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는 또래와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고 놀이를 방해하거나 놀이에서 단절된다는 선행연구(이지희, 김혜연, 2012; 정옥분 et al., 2011; 황윤세, 2007; Eisenberg et al., 199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여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감소하게 되고 이는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키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자체를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는 간접적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이는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출하는 유아에게도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지 않고 충분히 행할 수 있도록 돕는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취약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필요성과 효과, 구체적으로 온정적이고 반응적인 양육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부모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정적 정서성을 많이 표출하는 유아는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덜 보이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많이 행하지만 이러한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매개요인인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긍정적 영향으로 부정적 정서표현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의 증가 정도를 일정부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를 위해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는 유아에게 온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구체적 상황에서의 온정적 상호작용 기술을 교육하여 부모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은 증가하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은 감소하는데, 이 때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이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아의 활동성은 유아의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인 영향도 미친다. 유아의 기질적 특성 중 활동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다소 혼재되어있다. 유아의 활동성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진 연구(신은경 등, 2014)가 있는가 하면, 직접적 연관성이 없거나(김미은, 최선녀, 2016) 혹은 부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Eisenberg et al., 1996)도 있으며, 긍정적,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모두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Berdan et al., 2008)도 있다. 본 연구는 유아의 활동성이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나타내어 선행연구(신은경 등, 2014)와 일치한다. 활동성이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과 관련된다고 한 연구(허혜경, 2013)의 결과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때, 활동성은 신체적으로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는 특성과 관련되며 이는 유아가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유아의 활동성의 수준에 따라 지나치게 활동성이 높거나 함께 활동하는 친구와의 활동성에 차이가 클 때, 이것이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데, 본 연구의 대상은 활동성은 평균 3.8점(중간값 3점)으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은 활동성이 높을수록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유아의 활동성이 놀이방해, 놀이단절 등 부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킨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활동성이 높은 유아가 과잉행동, 공격적 행동 등으로 또래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와는 상이하나(Berdan et al., 2008) 긍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은 증가시키고 부정적인 또래놀이행동은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함께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입증하였다. 유아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도 증가하며 이는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아의 활동성은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증가시킴으로써 이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기질적으로 활동성이 높은 유아들에게도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양육행동을 많이 행함으로써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활동성이 높은 유아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양육행동을 할 수 있는 양육기술에 대한 워크샵 등 기질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양육행동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주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또래놀이행동을 발달시켜나가는 유아기 초기의 유아를 대상으로 행해진 본 연구에서 유아의 기질적 특성 중 사회성과 활동성은 공히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키는 요인이지만 부정적 정서성은 반대로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키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유아의 기질적 특성인 사회성, 부정적 정서성, 활동성이 긍정적,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모든 영향력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특히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을 감소시키지만 사회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정적 정서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악영향을 상쇄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으로 인해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감소하지 않도록 부모교육을 통해 어머니가 자녀의 부정적 정서성을 이해하도록 돕고 사회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하며 실제적 상호작용 연습을 통해 온정적, 반응적인 사회적 양육행동의 기술을 높여주는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부정적 정서를 많이 표출하는 유아에게도 어머니가 사회적 양육행동을 충분히 행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가시키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의 또래놀이행동 및 또래관계 증진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이와 함께 사회성과 활동성이 높은 유아들의 또래놀이행동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부가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밝혀졌으므로 전반적으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자녀의 또래관계 증진에 중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유아의 사회적 능력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인 중 일차적 환경인 가정에서 어머니와 이루어지는 관계형성 및 양육방식이 중요하고 가정에서의 어머니와의 관계가 사회에서의 또래관계로 확대되었을 때 이전에 형성된 관계의 방

식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선행연구(이보영, 2012)가 본 연구의 결과 및 시사점을 지지한다.

본 연구는 유아기 초기의 유아들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요인이 됨을 밝혔다는 의의가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녀의 긍정적,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영향력을 부모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각 특성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증진을 통해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음을 교육함으로써 유아의 긍정적 또래놀이행동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부모로서의 개입방법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유아의 기질적 특성별로 각 기질적 특성이 긍정적,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고찰하였다. 부정적 정서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은 낮아지는데, 이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부정적 정서성이 높은 유아의 부모들에게는 부정적 정서 표출이 많은 유아를 대상으로 사회적 양육행동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호작용 방식을 교육하는 등 교육의 내용을 특화하여 실제적인 적용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성 및 활동성에 따라서도 부모가 자녀의 기질적 특성 및 또래놀이행동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사회적 양육행동을 증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질별 특성에 따라 긍정적, 부정적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력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의 기질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개입이 더욱 효과적인 개입이고,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이 더욱 필요시 되는지에 대한 기본 연구로서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아동패널 데이터를 사용함으로써 대규모의 대표성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다 신뢰로운 결과를 얻었다는 장점이 있으나 반면 대규모 조사로서 유아관련 변인인 유아의 기질적 특성이나 또래놀이행동에 대한 정보가 관찰 및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형식이 아닌 부모평정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의 특성에 따라 정보가 편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대규모 조사로 얻은 본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의 기질적 특성 및 또래놀이에 대해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전문가의 관찰 및 조사기법을 적용하여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점이 보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또래놀이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된 부정적 정서성과 관련하여 유아의 부정적 정서의 표출을 조절할 수 있는 효과적인 상호작용으로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호작용의 형태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 양상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권연희 (2003). 아동의 정서성과 대인간 문제해결전략 및 어머니의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난실, 이기숙 (2008). 개인적·환경적 변인에 따른 영아의 또래상호작용 형태. **유아교육연구,**

28(1), 159-184. doi.org/10.18023/kjece.2008.28.1.008

김미은, 최선녀 (2016). 성별에 따라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우울,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00,** 121-149.

김상림, 박창현 (2015). 유아의 기질과 교사효능감 및 교사-유아상호작용이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37-58. doi:10.14698/jkcce.2015.11.037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 181

김윤희, 신나리 (2016). 유아의 수줍음이 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영향: 교사-유아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1-17. doi:10.14698/jkcce.2016.12.06.001

박성연, 도현심 (1993). 성, 형제수, 출생순위 및 형제 성 구성에 따른 아동의 사회성. **아동학회지, 14**(2), 35-47.

박정희, 장영애 (2004).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 스트 레스와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아동과권리, 8**(2), 327-353.

서주현 (2009).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조화적합성이 유아의 지적능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미영 (2016). 유아의 놀이성, 정서통제, 정서불안정이또래놀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비교.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1), 37-55. doi:10.14698/jkcce.2016.12.037

성미영 (2017).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놀이행동 간 관계에서 행동문제의 매개적 역할: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3), 1-17. doi:10.14698/jkcce.2017.13.03.001

신은경, 정아현, 김소아 (2014). 아동의 기질과 또래 상호작용 간의 관계: 모의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1**(4), 149-169. doi:10.15284/kjhd.2014.21.4.149

우수경 (2008). 유아의 성, 기질, 정서능력 및 사회적 능력이 놀이성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5**(1), 259-280.

이미란 (2015). 유아의 기질, 부모의 양육방식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5), 191-214. doi:10.14698/jkcce.2015.11.191

이보영 (2012). 부모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자녀의 창의적 성향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2**(4), 115-132.

김상림, 박창현 (2015). 유아의 기질과 교사효능감 및 교사-유아상호작용이 유아의 또래놀이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6), 37-58. doi:10.14698/jkcce.2015.11.037

이선남, 이경옥 (2015). 유아의 초기 발달수준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4), 381-396. doi:10.18023/kjece.2015.35.4.017

이지희, 김혜연 (2012). 유아기 긍정적 · 부정적 또래상호작용에 관련된 변인 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8**(6), 301-322.

이현정 (2014).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 군집별 유아, 교사 및 학급 변인의 차이.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현정, 이예진, 신유림 (2013).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성향과 또래놀이 상호작용 관계에서 언어능력의 중재영향. **대한가정학회지, 51**(4), 395-401. doi:10.6115/fer.

2013.51.4.395

임현주 (2014). 유아의 성별,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34**(6), 5-27. doi:org/10.18023/kjece.2014.34.6.001

장영은 (2014).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과 유아의 어린이집 또래관계 부적응. **육아정책연구, 8**(2), 45-64.

장은정 (2001).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놀이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옥분, Rubin, K. H., 박성연, 윤종희, 도현심, 김경은 (2011). 영아기 정서와 기질, 유아기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4세 유아의 또래상호작용의 질. **인간발달연구, 18**(1), 151-168.

조운주, 김은영 (2014). 유아의 기질 및 부모 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8**(2), 155-174.

천희영 (1993).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14**(2), 17-34.

허혜경 (2013). 유아의 놀이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의 성, 기질 및 어머니의 양육 효 능 감 에 대한 효과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3**(2), 83-102.

홍현재 (2013).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행동, 교사-유아 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윤세 (2007). 유아의 기질, 자기조절력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2**(1), 145-166.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doi:10.1037//0022-3514.51.6.1173

Belsky, J., & Pluess, M. (2009). Beyond Diathesis-Stress: Differential Susceptibility to Environmental Infl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35*(6), 885-908. doi:10.1037/a0017376

Berdan, L. E., Keane, S. P., & Calkins, S. D. (2008). Temperament and externalizing behavior: Social preference and perceived acceptance as protective factors. *Developmental Psychology, 44*(4), 957-968. doi:10.1037/0012-1649.44.4.957

Bornstein, M. H., Tamis-LeMonda, C. S., Pascual, L., Haynes, O. M., Painter, K. M., Galperin, C. Z., et al. (1996). Ideas about parenting in Argentina,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9*(2), 347-367. doi:10.1177/016502549601900207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Erlbaum.

Eisenberg, N., Fabes, R. A., Karbon, M., Murpy, B. C., Wosinsky, M., Polazzi, L. et al.(1996). The relations of children's dispositional prosocial behavior to emotionality, regulation, and soci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7*(3), 974-992. doi:10.1111/j.1467-8624.1996.tb01777.x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C., Manz, P. H., Canning, S., & Debnam, D.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doi:10.1016/0885-2006(95)90028-4

Hartup, W. W. (2005). Peer interaction: What causes what?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3*(3), 387-394.

Parten, M. B. (1932). Social participation among pre-school children.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7*(3), 243-269. http://dx.doi.org/10.1037/h0074524.

Rothbart, M. K., Ellis, L. K., & Posner, M. I. (2004). Temperament and self-regulation. In R. F. Baumeister, K. D. Vohs (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Research, theory, and applications (pp. 441-460).* New York: Guilford Press.

Rothbart, M. K., & Derryberry, D. (1981). Development of individual difference in temperament. In M. E. Lamb, & A. L. Brown (Eds.) *Advances in Developmental Psychology(pp.* 37-86).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Rubin, K. H. (1977). Play behaviors of young children. *Young children, 32(6)*, 16-24.

Sanson, A., Hemphill, S. A., & Smart, D. (2004). Connections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development: A review. *Social Development, 13*(1), 142-170. doi:10.1046/j.1467-9507.2004.00261.x

Schaefer, E. S. (1959). A circumf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doi:10.1037/h0041114

Stanhope, L., Bell, R. Q., & Parker-Cohen, N. Y. (1987). Temperament and helping behavior in preschool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3*(3), 347-353. doi:10.1037/0012-1649.23.3.347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 Maxel.

논 문 투 고 : 17.12.30
수정원고접수 : 18.01.26
최종게재결정 : 18.01.29